

# 변화확장 경기지부

## 삼위일체의 희망찬 10기 향해

### 10기 계획 논의 시작

1.29(월) 지부 운영위원회는 10기 사업계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부 운영위는 작년 11월 말 비대위를 꾸렸다. 1월 말까지 현대케피코지회의 교섭상황을 고려하며 10기 지도부를 함께 세우기로 했다. 현대케피코지회도 17년 임단협 타결과 함께 지부 임원파견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현대그룹사 사업장들의 17년 임단협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현대케피코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축소와 소송 무력화'의 의지를 담은 임금체계 개악안을 들고 버티고 있다. 지부 운영위는 1월 31일까지 현대케피코지회의 교섭결과를 지켜본 후, 임단협 및 임원 파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 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선거 공고를 하기로 했다. 등록후보가 없으면 비대위 등 지부 운영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운영위는 지부 임원선거와 별개로 2018년 임단협 돌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10기 사업계획 논의를 시작했다. 2월 중 집행위, 운영위의 사업계획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장 공유, 의견수렴, 운영위 수련회를 거쳐 3월 19일(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서 10기 임원이 선출되면 사업의 세부내용 등을 포함해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지부 운영위원들은 10기 경기지부가 사업방향을 잡는 중요한 출발점 5가지를 정리·공유했다.

### 1. 양이 늘어난다

지부 조합원은 현재 5,200여명이다. 이 중 2010년 이후 신생노조로 가입한 조합원이 14개 사업장 2,000여명이다. 기존 노조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도 최소 200여명을 넘는다. 신규 조합원이 전체의 45%에 육박한다. 대부분은 2012년 에스제이엠과 두원정공 두 번의 직장폐쇄를 승리하면서 방어투쟁에 성공한 이후, 신생노조 만들기로 확장에 성공한 결과다.

### 2. 다채롭다

양만 늘었다. 구성도 다양해졌다. 기존엔 대부분 자동차부품사였다. 이제는 금형모래우리, 철강대창썬텍, 담배필터삼화, 페인트지큐피앤씨, 요식업삼성, 삼성웰스토리 기술서비스직삼성전자서비스경기 등 업종이 다양하다. 물론 자동차부품산업계양천안, 말레동현, 코리아에프티, 현대남양비정규, 현대모비스화성, 현대위아비정규, 평택, 현대위아안산, 금토일 등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이 늘었다.

업종 뿐 아니라 통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하청노동자

도 늘어 1,000명을 넘는다. 삼성전자서비스, 현대남양비정규, 현대모비스화성, 현대위아평택, 현대위아안산

기업연관성을 보면 한국사회 1위 재벌 삼성에 속한 조합원부터 2위 재벌 현대기아차그룹사 하청노동자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원하청 연관성이 덜한 대창 같은 사업장들도 있다.

### 3. 질적 향상

지부는 신생노조가 늘어났음에도 운영위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각종 기금모금을 비롯 재정집중력도 뛰어난 편이다. 투쟁에서도 대부분 사업장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4. 상승효과

지부의 오늘은 기존 노조가 민주노조 파괴공세에 잘 대응하며 훌륭한 기풍을 만들고, 지키기를 넘어서 권리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동시에 신생노조는 각종 집회와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신생노조의 높은 참여율은 지부 전체의 활력을 높인다. 기존 노조에도 새로운 간부들이 점점 늘어나 노조에 젊은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고참은 이끌고 신참은 활기를 불어넣어 '끌고 미는'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5. 삼위일체 기풍과 통합력

경기지부는 단결불패, 협력필승, 권리함께의 삼위일체 방향으로 달려왔다. 고참노조와 간부는 단결의 정신을 실천해왔고 동시에 권리함께를 위해 신생노조가 생기고 투쟁하면 '물뽕정신'을 보여 왔다.

### 더 희망찬 10기를 열자

촛불단핵으로 정세가 바뀌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쟁점이 튀어 오르고 있다. 또 지부에는 기존 사업장 중 경영연계에 놓인 사업장, 다가올 미래자동차산업 영향을 대비해야할 사업장도 있다. 신생노조 조합원과 간부에게는 전통을 익히면서도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활동을 개발해서 활력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제 10기를 열어갈 계획을 본격논의하면서 10기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나아가 2018년을 당당히 열어갈 시점이다.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좋은 향기 금속 경기'를 더욱 활짝 꽃피우자.

# 함께 쓰는 “좋은 이야기”

지부 모든 사업장은 2018년 임·단협 교섭요구 공문을 회사에 발송, 교섭권 확보 절차를 거쳤다. 복수노조 사업장 중 코리아에프티는 3개 노조 중 다수노조로 교섭권을 확보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교섭권을 확보했다. 1개 업체는 기업노조 조합원 숫자를 부풀린 정황이 있어 지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폐업공고를 한 상태다.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는 소수노조지만 3개 노조 간 회의 등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2018년 계획을 논의 중이다.

지부는 1.25(목) 지부 단협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8년 임·단협을 앞둔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지부 공동요구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단협위원회는 신한발브분회 문하용 분회장이 지부 비대위 임원으로 진행을 맡았다.

신생노조들은 교섭과 투쟁을 이어가며 출생신고(단협 체결)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부 임원선거가 늦춰지는 와중에도 지부 모든 사업장들이 마음과 힘을 실어 함께 인생에 남은 좋은 이야기들을 써가는 중이다.

## 현대위아안산, 기본협약 체결 · 교섭 본격화

현대위아 사측은 교섭이 7차에 이르기까지 회사 밖에서 교섭하자고 고집했다. 1차례 사내에서 교섭했는데도 또 밖에서 보자고 했다. 지회는 1월 8일 조정신청을 했고, 17일 조정회의에서 교섭진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수사의 교섭 전달, 당일, 다음 날 전임 인정, 교섭위원 교섭당일 전임, 주 1회 본교섭과 축소교섭 순차 진행, 장소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돌아가며 하기로 했다. 회사는 지노위에서 약속한 뒤에도 교섭장소를 가지고 뒤끝을 부렸지만 1.25(목) 8차 교섭은 사내에서 열렸다. 교섭에서 지회는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사무실 사내 설치, 인력 확보 등 단협 체결 전까지의 현안 해결, 일괄제 시안을 차기 교섭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13(토) 지회는 신년투쟁선포식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대원안산, 대창, 말레동현화성, 에스제이엠, 우창, 시그네틱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 현대모비스화성지회 등 지부 사업장들이 주말에도 응원하러 왔다. 지회 조합원들은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노래자랑을 열어 신나게 2018년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1.25(목) 교섭 전에는 회사 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안산권 사업장 모두 지지하러 모였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우창정기지회는 점심시간에 마실하듯 위아까지 살살 걸어가 응원피케팅을 한다. 지회는 안팎의 열기를 높여가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에스제이엠 이용호 지회장이 교섭대표를 맡아 든든하게 지원한다.

## 삼성웰스토리, 회사 교섭권 경총에 위임

삼성웰스토리 교섭이 1.10(수) 상견례를 시작으로 3차까지 이어졌지만, 회사는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하고 시간, 장소를 일방통보하는 등 고집만 부리고 있다. 회사가 상견례를 연기하고 교섭장소 변경해도 지회는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대한 수용했지만 회사는 교섭위원 시간할애, 교섭시간, 교섭장소 등 기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1.30(화) 간부수련회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양정기지회 조창식 지회장이 교섭대표를 맡아 함께 한다.

## 금토일산업, 쟁점사항 논의만 남겨

금토일산업지회는 3차 본교섭까지 오면서 20여 개 주요 쟁점들을 제외한 단체협약 조항들에 노사 간 의견을 모았다. 전임자 문제, 조합활동시간, 이주노동자 고용과 처우에 관한 문제 등이 앞으로 교섭의 핵심쟁점이다. 설 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모아가되, 진척이 없다면 조정 등 다음 단계를 밟아갈 예정이다. 지회는 주말 간부교육 등을 배치하며 준비하고 있다. 우창정기지회 김도영 지회장이 교섭대표를 맡아 함께 좋은 이야기를 써간다.

## 삼성전자서비스경기, 지회 안정화 목표

10기에 지부로 편제된 삼성전자서비스경기지회는 전국 각지에 사업장과 조합원이 있는 특성 상 교섭을 지회 중앙이 관장한다. 각 지역 지회장들 중 통합지수사를 선출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2017년 임·단협은 1월 12일 의견일치, 찬반투표를 거쳐 1월 26일 타결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지부 편제에 따른 타임오프 사용범위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지회는 1월 상집수련회, 분회총회 등을 거쳐 2018년 지회 안정화와 조직확대 등 계획을 공유하는 중이다.



△ 현대위아안산지회 신년투쟁선포식이 지부 전 사업장의 지원 속에 가족까지 함께 모여 신나고 즐겁게 진행됐다.